

# 인터넷 기술인력의 사회적 수요와 전망

최종원/숙명여자대학교 컴퓨터공학과교수

21세기는 '정보화시대'로서 정보화의 선진국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며, 정보화에 따르는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1946년 ENIAC 컴퓨터가 발명된 이래로 컴퓨터는 가격 대비 성능의 향상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통신망과의 결합

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였고 그러한 컴퓨터 통신망의 하나가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은 정보교환의 장을 제공하는 인프라뿐만 아니라 그 위에서의 다양하게 제공되는 응용 서비스까지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도 전화망, 방송망, 우편망 등의 정보교환의 장이 있었으나 이들이 특정 목적을 위한 것이라 한다면 인터넷은 하나의 망을 통하여 음성, 동영상, 정지영상, 텍스트 등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보교환을 위한 장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0여년의 역사를 가진 인터넷 기술은 1993년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NCSA 슈퍼컴퓨터 센터에서 Marc L. Andressen이 모자익(Mosaic)이라고 하는 월드 와이드

웹 브라우저를 개발하면서 일반대중에게도 폭발적으로 인터넷 보급의 확산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과거 일부 과학자와 대학교에서만 사용되던 인터넷이 상업화와 연결되었고 사회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활용 비즈니스가 나타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대중의 관심이 거품현상으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황금알을 낳는 새로운 시대의 기술로 발전 할지는 정확

인터넷은 정보유통의 혁명을 가져다 주었고 이로 인해 사회구조에 변화와 비즈니스의 구조를 변화 시키고 있다. 그래서 인터넷은 사회 모든 분야와 심지어는 개인에게 까지도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홈페이지 제작과 전자메일, 전자상거래, 화상회의, 인터넷 광고, 인터넷 게임 등 다양한 서비스에 매료되고 있고 이를 매일 이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는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고 이를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 기술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이 인터넷의 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히 예견하기 어려우나 지금까지의 기술발전 및 보급 추세를 본다면 앞으로 인터넷 관련 기술은 더욱 발전할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금도 인터넷 관련 기술은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를 중심으로 전 세계의 인터넷 기술자들이 모여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전문가들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욱 많은 분야에 인터넷 기술이 필요하게 될 것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많은 수의 인터넷 기술 인력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인터넷은 정보유통의 혁명을 가져다 주었고 이로 인해 사회구조에 변화와 비즈니스의 구조를 변화 시키고 있다. 그래서 인터넷은 사회 모든 분야와 심지어는 개인에게 까지도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홈페이지 제작과 전자메일, 전자상거래, 화상회의, 인터넷 광고, 인터넷 게임 등 다양한 서비스에 매료되고 있고 이를 매일 이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는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고 이를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 기술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이 인터넷의 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현재 대학뿐만 아니라 사설교육기관에서도 인터넷과 관련한 교육을 통하여 인터넷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 기술인력은 인터넷 기반 기술을 개발하는 인력과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응용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배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자의 기술인력은 인터넷에서의 정보의 올바른 전달을 위한 프로토콜들에 대한 기술을 가지는 기술인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컴퓨터관련 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도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도전할 수 있는 인터넷 응용 서비스 개발에 초점을 맞춘 인터넷 기술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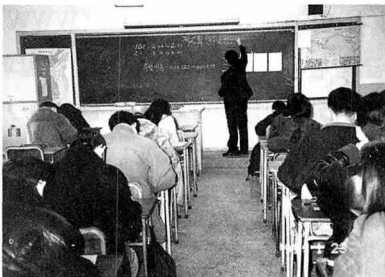
인터넷을 이용한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이 비즈니스와 연결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터넷 응용 서비스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만약에 인터넷에서 웹(WWW)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개발되지 않았다면 아마도 인터넷이 지금과 같은 인터넷 비즈니스의 촉발과 대중의 인기를 끌지 못하였을 것이다. 예를 들어 어린이들에게 놀이터만을 만들어주고 다양한 게임을 개발하여 보급하지 않는다면 어린이들은 놀이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즉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놀이터라고 할 수 있고 인터넷 서비스는 게임에 비교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서 네비게이터 브라우저를 개발한 Netscape사, 정보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야후, 인터넷 전자서점을 운영하는 아마존 서점, 인터넷광고를 제공 하는 골드뱅크사 등의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로 사업에 성공을 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무한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함으로써 이를 비즈니스에 활용하면 많은 고용창출을 이루어 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인터넷을 이용한 비즈니스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벤처자본과 우수한 인터넷 기술인력의 만남이 조화를 잘 이룰 때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사회는 보다 많은 관심을 인터넷 관련 기술인력 양성에 기울여야 하며, 이것만이 우리가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세계 강대국의 정보화의 연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이다. 한편, 우수한 인터넷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의 투자가 필요하며, 최근에 정부에서는 정보화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기금을 점차로 확대하여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는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차세대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인터넷을 개발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NGI(Next Generation Internet)와 Internet2 ,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APAN(Asia Pacific Advanced Network) 캐나다의 CA\*Net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초고속 네트워크를 개발하면서 개발자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이며, 이의 성공 여부에 따라 차세대 인터넷의 발전도 함께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천년의 시대에 세계속의 한국을 드높이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분야 특히 인터넷 관련 분야의 우수한 인력 양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인력들이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비즈니스화 할 수 있도록 벤처자금의 투자가 활성화된다면 새로운 고용창출과 인터넷 기술의 발전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 제2회 인터넷정보검색사 1급 실기시험 실시



협회는 인터넷활성화와 전문인력 보급을 위해 실시한 제2회 인터넷정보검색사 시험을 지난 '99. 1월 24일 1급 필기시험 1차에 이어 지난 '99. 2월28일 제2차 실기시험을 실시했다.

총 1,012명이 응시해 478명이 합격, 44.6%의 합격률을 보였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16개도시에서 일제히 시행된 이번 시험에서는 서울, 인천, 경기지역이 최다 합격률(261명, 54.6%)을 보였으며 합격자의 직업분포도에서는 학생(230명, 48.1%), 직장인(98명, 20.5%), 공무원(13명 2.7%), 교직(21명 4.4%), 기타(116명 24.3%)순으로 나타났으며, 합격자의 나이분포도에서는 10대(24명, 5.0%), 20대(370명, 77.4%), 30대(75명, 15.7%), 40대(9명, 1.9%) 순으로 나타났다.

※ 문의 : 인터넷기술자격인증시험 홈페이지 참조